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주 독서: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윤여진 엘리사베스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주현, 이지은
 다음주 복사: 강선우, 우상인
 이번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최미라 베아트리카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김지영 알로이시아
 친교실 정리: 제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14
 교무금: \$ 430

합 계: \$ 644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각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토요 교리모임	각주 토요일 4 시 성당 지하 친교실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나셨던 팔레스티나는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해안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지역의 기후가 건조하고 메마른 나라입니다. 당시 내륙 지방의 갈릴래아 지역과 요르단 강 주변을 빼고는 올리브를 가꾸고 양 떼를 기르며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산록 지대였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건기가 되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멀리 풀밭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임시 양 우리에 들어가 다른 양 떼들과 섞여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면 종종 도둑들이 양 우리를 넘고 들어와 양들을 해치고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각자 자기의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다시 풀밭으로 데려갑니다. 목자들이 양 떼를 그냥 몰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들 하나하나에 목자들이 지어 준 고유한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듣고 소리를 내며 주인을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목자와 양들의 풍경을 보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마치 양들처럼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마르 6,34)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몸소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목자를 따라 나서는 양들처럼, 우리는 오늘도 신나게 주님을 따라나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부활 제 4 주일]

2011 년 5 월 14 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2, 14 ~, 36-41

<제 2 독서> 베드로 1 서, 2, 20 ~-25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알렐루야..

복 음

요한복음, 10, 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 바리새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51 봉헌: 253 성체: 498 파견: 132



생명의 말씀

가지 않은 길

‘성소(聖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聖스러운 부르심을 뜻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가지 부르심 중에 어떤 것이 성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는 것을 바로 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지금 너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릴 수 있으며, 그것을 따르는 길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주교님은 어렸을 때 집안이 몹시 가난했는데, 집에 오신 신부님께 어머니가 계란찜을 해 드리는 것을 보고 계란찜이 먹고 싶어 신학교에 가셨답니다. 후에 주교님까지 되셨지만... 또한 나환자의 벗이 되신 신부님도 계시고, 노동자가 되신 신부님, 병을 고치는 의사 신부님, 음악을 하는 신부님도 계십니다. 수도자가 되는 것도 성소이고, 성가정을 만드는 가정이 되는 것도, 성모님 닮은 가정주부가 되는 것도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바로 성소의 삶입니다. 성소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떤 모습의 삶이든 ‘사랑에로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사랑하기 위한 ‘자기 자리’를 찾아내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그곳이 바로 ‘성소의 자리’라고 믿어도 됩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곳은 성소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성소라는 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나긴 여정입니다. 우리 삶의 성소는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제가 죽으면 수의 대신 첫 제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비로소 성소가 완성되어 사제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들의 사랑도 지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성소주일입니다. 사제와 신자들은 서로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서로 부럽기도 하고, 그림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성소를 받고 나름대로 성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제와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사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사제에게 신자들은 목숨 바치고 싶은 연인이어야 합니다.

사제에겐 신자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착한 사제가 되도록, 건강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제 되도록, 또한 사제 공동체가 하나로 화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요즈음 차츰 줄어드는 사제, 수도자 성소를 걱정하며, 부모들이 훌륭한 자녀를 바치도록, 하느님께 나아갈 자녀를 붙잡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공지사항

- 저희 성당 Facebook Group 을 개설했습니다. 주로 교우분들의 친교를 위한 용 도로 쓰일 계획입니다. 기존의 성당 홈페이지도 공식적인 용도로 계속 이용됩 니다. 가입하시려면

1. Facebook 로그인 하셔서 search 칸에 kccmwi@gmail.com 로 검색하셔서 친구 신청하시거나,
2. search 칸에 '매디슨 한인천주교회'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그룹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위에 "Ask to join"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친교실 부엌 열쇠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열쇠를 하나 받았습니 다. 부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에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학생분들 모두 한 학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성가대 지휘를 담당하는 한 영주 리드비나 자매님의 독창회에 교우 여러분을 모십니다.

장소 : 세인트 폴 성당

날짜 : 5 월 21 일 토요일

시간 : 미사 한 시간 전 (오후 4 시)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옆 초청장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교리

부활시기 전례적 특징과 상징들

주님 승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신자들 안에서 영원한 현존으로 남아계신다는 것이다. 이날 교회는 본기도를 통해 인간들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의 영광에 들어올려질 것임을 기억하게 된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에서는 '주님 승천 다음부터 성령 강림 전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보호자이신 성령의 강림을 준비한다 (26 항)'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이날은 '성령의 파견에 관한 주님 약속을 기억하는'고유 미사양식을 갖게 된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성령 강림 9 일 기도에 대한 신자들의 신심이 생겨나고 이후 공식 전례에도 받아들여졌다고 밝힌다. 이날은 또한 홍보주일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승천하기에 앞서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한 것을 되새기는 의미다.